■ 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95-318.
http://doi.org/10.17948/kcs.2021..91.295

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일본불교의 활동과 마산포교당의 대응에 관한 고찰*

김성순(金星順)**

목 차

1. 서론
2. 마산지역에 온 일본불교
3. 일제강점기 마산 포교당의 활동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1910년-1920년대 개항기를 중심으로 일본불교가 마산지역에 들어오는 상황과, 이에 대응하여 통도사에서 마산포교당을 설립하고, 마산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포교, 문화사업을 진행했던 모습을 역사학적 자료를 통해 고찰했다. 이 글에서 마산포교당의 사람들로 설정된 주체는 포교사를 비롯하여 포교당의 신도들, 포교당을 주축으로 하여 결성된 마산불교위원회, 배달학원과 배달유치원의 운영진, 교사, 후원자들을 모두 포괄한다.

1876년 개항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본불교의 한국진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1-A00008).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화와 맞물려 한국불교에서도 개별 사찰에서 포교당을 설립하여 교육과 포교활동을 진행하는 근대화 현상을 견인하게 된다.

마산포에서도 정토종을 필두로 하여 정토진종, 일련종, 일련정종, 진언종, 조동종 그리고 금광교나 천리교 등의 신종교들까지 종파 별로 신마산 지역에 포교소를 설치했다.

통도사에서 세운 마산포교당에는 김경봉(金鏡峰)이 초대 주지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경봉과 장지연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주변의 불교인사들도 함께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교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지연이 설립 초기부터 함께 했던 마산불교진흥회 회원 상당수가 항일단체인 마산 신간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팽석재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회원이 한국의 공식적인 독립유공자 기록에 남아있다. 그 외 독립운동 관련 기록에서 누락된 이들도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마산포교당에서는 마산불교진흥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학원과 배달유치원을 설립하여 교육과 포교는 물론 지역의 문화사업까지 진행하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었다. 작은 규모의 포교당이지만, 그 구성원인 포교사와 신도들이 그 시대 마산에서 해냈던 교육과 사회사업은 물론 독립운동의 궤적 역시 만만치 않았음이 확인된다.

주제어: 일제강점기, 통도사, 마산포교당, 교육, 포교, 독립운동.

1. 서론

한국불교 도심포교당의 효시인 정법사는 1912년 4월 8일 통도사 마산포교당이라는 이름으로 마산시 추산동에 창건되었다. 당시 울산, 대구, 경주, 마산에 포교당을 건립했는데 현재는 울산과 마산포교당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개항기(1897-1910)라는 시기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위기와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여러 과감한 시도들이 이어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1] 한국의 개항기는 외세의 침탈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 제국주의의 물결 안

1) 제점숙, 「일본불교의 근대인식과 개항기 조선: 정토종(淨土宗)의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2, 한국일본근대학회, 2011, 111면.

에는 종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조선침략을 노골화하면서 일본종교, 특히 여러 불교 종단들이 한국에 상륙하게 된다. 정토진종, 일련종, 일련정종, 조동종, 정토종, 진언종의 각 파별로 전쟁터에 종군승을 파견하였으며, 부대가 진주한 곳을 따라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산, 군산, 부산, 목포 등의 항구에 별원 또는 포교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일본불교 포교사들은 개항 초기에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점차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였다. 일본불교 별원이나 포교소는 본국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유치원과 각종 실업학교를 세워 위생적인 생활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민구제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2]

마산은 1900년을 전후하여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산항과 진해항이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지였으며, 항구도시의 특성상 외세의 침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육군성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마산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를 설치하기도 했다.[3] 특히 지금의 신마산 지역에 해당되는 구역에서는 일본인 가구가 6백86호로서, 한국인 6백76호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1910년-1920년대를 중심으로 통도사 측에서 개항기 상황에 대응하여 마산포교당을 설립하고, 마산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포교, 문화사업을 진행했던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마산포교당의 사람들로 설정된 주체는 포교사를 비롯하여 포교당의 신도들, 포교당을 주축으로 하여 결성된 마산불교위원회, 배달학원과 배달유치원의 운영진, 교사, 후원자들을 모두 포괄한다.

---

2) 김순석, 「근대 일본 불교 세력의 침투와 불교계의 동향」, 『한국학연구』 1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8, 71면.

3) 김의환, 「조선을 둘러싼 근대 露日관계 연구: 馬山浦 사건과 港民의 저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1-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273면.

4) 남부희, 「마산·창원지역의 3·1운동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7, 180면.

아직까지 마산포교당이나, 그 후신인 정법사에 대한 선행연구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상황을 다룬 연구논문과 마산지역 연구,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공식 기록 등을 활용하여 논문을 진행하기로 한다.

2. 마산지역에 온 일본불교

청일전쟁 후 1897년 10월 1일에 목포 진남포 개항, 1899년 5월 1일에 군산 성진포와 함께 마산포도 개항하게 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마산포 개항(1899년)으로 일본, 러시아 등의 각국이 마산에서 거류지 설치와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중 일본이 가장 활발하게 거류지 확장을 하면서 조선으로 이주・정착에 나섰다.[5] 마산이 개항된 지 약 3년이 지난 1902년(광무6) 5월 17일 '마산포전관일본거류지협정서(馬山浦專管日本居留地協定書)'가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마산포를 개항할 즈음, 주한일본공사 가등증웅[加藤增雄]은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기존 시가지가 있는 마산포에서 서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약 110만㎡를 거류지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6] 총독부가 1914년 4월 부제(府制)를 실시하면서, 마산포는 독자적인 행정 구역인 마산부가 되었다.[7] 총독부는 이 제도를 조선인과 외국인이 각기 상이한 제도 아래 놓여 행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만들었지만 실상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의 재편이었다.[8]

마산으로 유입되는 일본인 수는 1899년 개항 당시 103명이었으나, 러일

---

5) 대곡파의 엔신(圓心)과 이오코(五百子)는 개화당과 지방 관찰사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였고, 일련종의 사노(佐野)는 내각 최고의 관리들을 설득해 그 입지를 다져갔다. 그리고 정토종의 히로야츠(廣安)는 대한제국의 황실과 그 수뇌부를 포섭했고, 조동종의 다케다(武田)는 친일파의 거두 이용구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김예슬, 「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사업체와 조선인경제인 연구」,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2019, 17-18면.

6) 「馬山・群山・城津에 定한 外國人 居留地地圖의 呈覽 및 同意要請」,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권 外部往信(4), 1899.2.22.

7) 1913년 10월 制令 제7호 공포, 1914년 4월 1일 시행. 『朝鮮總督府官報-號外』, 제376호 1913.10.30.; 제444호 1914.1.25.

8) 김예슬, 앞의 글, 21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 1906년 2,170명, 1907년 3,27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자 1907년 말부터 일본인들은 거류지를 조선인들의 거주지 및 상업지와 구별하며 스스로 '신마산(新馬山)'이라 불렀다. 이들은 반대로 조선인들의 주거 및 경제적 중심지인 마산포를 '구마산(舊馬山)'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마산포를 구마산이라고 명명하자, 마산의 조선인들은 스스로 '동마산(東馬山)' 또는 '마산포(馬山浦)'라고 부르며 일본인이 붙인 호칭에 맞섰다.[9]

한국불교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은 위기와 함께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가져다 주게 된다. 특히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포교당을 만들게 되면서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포교활동을 개시했던 것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10년-1913년의 기간 동안 18개의 포교당이 설립되었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1910년부터 불교계에서는 포교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인식되었으며, 개별 사찰 내지 연합사찰의 주도로 포교당 건립과 운영을 통하여 포교사업을 전개하게 된다.[10] 이에 따라, 불교잡지, 포교당, 포교 방법의 심화, 계층별 포교(소년, 부인회 등), 유치원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불교계의 근대화에 대한 자생적 고민과 함께 일본불교의 영향이 개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 근대화를 추진한 주체들이 대부분 일본유학 및 견학을 거친 이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불교근대화작업 역시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11]

한편 한국불교계에서도 포교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 김태흡을 들 수 있다. 김태흡이 제시한 안을 보면, 첫째, 기도와 제사를 위주로 하는 기존의 사원 구조 대신에 민중 중심의 포교에 용이한 구조인 회관식으로 짓자는 것이다. 이는 곧 다수인에

9) 諏方史郎, 『馬山港誌』, 朝鮮史談會, 1926, 91면.
10) 김광식, 「근대불교의 청소년 포교와 조선불교소년회」, 『대각사상』 8, 대각사상연구원, 2005, 11-12면.
11) 김광식,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일본불교사연구』 9, 일본불교사연구소, 2013, 22-23면.

게 포교하기 위한 모임 장소로서 교당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둘째, 법문은 설교[講話]식으로 하며, 반드시 찬불가를 부르고, 우리말로 된 구체적인 성전으로써 설교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당에는 유치원, 간이 서당, 일요학교, 야학, 유희장 등 부속기관을 두자는 대안도 내놓았다.[12] 이 글에서 다루게 될 마산포교당과 그에 부속된 배달학원, 배달유치원 등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산에 진출한 일본의 종교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신도(神道)는 마산신사를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참배하고, 이세태묘(伊勢太廟)에 요배(遙拜)하도록 강요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신종교 중에서 한국에 진출했던 교단도 있었는데, 천리교(天理教) 마산포교소는 1920년 5월 3일에 인가를 받았으며, 신마산에 1곳, 중정(仲町)에 1곳, 구마산 원정(元町)에 1곳, 오동동(午東洞) 1곳의 포교소가 있었다. 금광교(金光教)의 포교소 실태는 명확하지 않고, 한두 명의 신자가 있다고 알려진 정도이다.[13] 신리교(神理教) 마산교회소는 1927년 6월 22일에 인가를 받고, 부정(富町) 105번지에 소재하고 있었다.

정토종은 포교 초기부터 대한제국 황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한국인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근대식 학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포교전략을 구사한 결과, 1905년에 이르러 전국의 정토종 신도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러일전쟁 이전에는 4개의 포교소(경성, 인천, 마산, 평양)를 가지고 있었지만, 1911년경에는 23개로 늘어나는 등 타 종파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14]

정토종 마산교회소는 신월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삼우전지문(三隅田持門)(1915.12.20.), 대교준굉(大橋俊宏)(1916.11.25.), 가등교순(加藤教純)(1923.6.22.) 등이 담임포교사를 맡고 있었다. 삼우전지문은 메이지 35년 일본불교 포교사의 선두로 마산에 왔으며, 그 해 11월 4일 거류지 서쪽의 한옥을 빌려서 증축·수리하여 포교장을 열었다. 이 포교소는 화장터로 가는 길목에

12) 김광식, 앞의 글, 2005, 19면.
13) 諏方史郎, 앞의 책, 148-149면.
14) 윤기엽, 「개화기(開化期) 일본불교의 포교 양상과 추이」,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4,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276면.

있어서 종파를 불문하고 화장자의 관을 이 절에 안치하고 장례식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삼우전지문은 마산에 처음 일본종파의 포교소를 세운 원조이기도 하고, 마산 염불강좌를 이끌기도 했다.[15] 또한 삼우전지문은 오사카 아사히신문의 통신원이면서, 자선상회라는 이름으로 학용품과 잡화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다. 포교소의 별실에는 마산포 일본인학교를 만들어서 남녀 아동 13명을 수용하여 교육했다. 메이지 37년에는 신설한 공립심상(尋常)소학교와 병합하여 포교소를 본정(本町) 2丁目 안으로 이전했다.[16]

진언종 풍산파(豊山派) 마산포교소는 신정(新町) 57번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중야현제(中野賢済)(1930.2.23.)가 포교사를 맡고 있었다. 진언종(眞言宗) 환주산(還珠山) 홍법사(弘法寺)는 노일전쟁 당시 종군승으로 활약했던 삼궁융황(三宮隆晃)이 1908년(명치 44)에 공신당산(功神堂山)의 동쪽 기슭에 있는 일본인 소유의 민가를 빌려서 개창했다고 한다.[17]

같은 진언종인 고야산(高野山) 대사교회(大師教会)[18] 마산지부는 1937년 11월 10일에 인가를 받았으며, 통정(通町) 1정목(丁目) 24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담임 포교사는 성도광성(星島光城)(1937.11.10.)이었다. 1936년 6월에는 완월동에 신사국 88개소 영장(靈場)이 설치되어 부동명왕 마애상과 본존불(일부)가 안치되기도 했다. 또한 마산 성덕암, 해은사 등의 사찰은 물론 제일여고 교정에도 신사국영장 관련 석불이 설치되었으며, 1930-40년대 마산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사업가들이 영장 석불의 시주자로 명기되어 있다.[19]

일련종(日蓮宗) 마산포교소는 1916년 7월 5일에 인가를 받았으며, 통정(通町) 4정목 25-2-1에 자리잡고 있었다. 담임 포교사는 강본조조(岡本潮照)(1916.5.15)였다. 화엄종 마산포교소는 1939년 7월 21일에 인가를 받았

15) 스와 부고츠(諏方武骨), 하동길 역, 『마산번창기』, 창원학연구센터, 2021, 72면.
16) 諏方史郎, 앞의 책, 146면.
17) 같은 책, 143면.
18) '대사교회'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제강점기에는 사찰에도 '교회(教會)'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대사당(大師堂)은 일본 진언종 사찰건축의 특징으로 홍법대사 존상을 안치하는 건물로서, 불상을 봉안하는 본당과 다른 건물을 말한다. 손장원, 「인천신사국팔십팔영장(仁川新四国八十八霊場) 연구」, 『인천학연구』 24, 인천학연구원, 2016, 46-47면.
19) 손장원, 같은 글, 57면.

으며, 본정(本町) 2정목(丁目) 6에 자리잡고 있었다. 담임포교사는 좌등행진(佐藤幸真)(1939.7.21.)이었다. 일련정종(日蓮正宗)의 경우에는 마산포에서 활동하는 실업가 야간독치(野間篤治)의 부인이 집안에 본존과 만다라를 안치하고 신자들을 끌어들여서 서양요리를 가르치기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한다.

조동종(曹洞宗) 무학산(舞鶴山) 복수사(福壽寺)를 운영한 개교사는 정수양오(井手良梧)라는 순회 포교사였으며, 1909년에 마산 통정(通町) 4정목(町目)에 위치한 민가에 임시 포교장을 열었다. 나중에 신도의 희사금과 본산의 교부금으로 마산의 완월동에 사찰을 지었으며, 그의 후계 주지는 33불을 경내에 봉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교의 영역을 확장했다. 또한 복수사 안에 마산관음부인회(馬山觀音婦人會)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기도 했다.[20]

복수사에서는 학교를 신축하여 복수(福壽)야학회를 만들어 조선인 빈민 자제에게 초등교육을 하기도 하고, 별도로 복수(福壽)야학부를 만들어 산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복수야학회는 사회교화사업 차원에서 전적으로 조선인 자제에 대한 초등교육 외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했으며, 당시 취학 아동 수는 120명(1학년 46, 2학년 48, 3학년 26)이었다. 당시 보통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빈곤한 조선인의 자제 1백 명을 복수사 객전(客殿)에 수용하여 조선인 2명과 일본인 교사가 맡아 죽세공품이나, 양복 재봉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21]

정토진종 대곡파 마산포교소 1931년 6월 23일에 인가를 받았으며, 마산부 신정(新町)에 주소를 두고 내마현장(內麻賢章)(1931.6.23.)과 玉村利(1932.3.20.)가 담임 포교사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진종 본원사(本願寺)파 마산출장소는 1915년 5월 21일에 인가를 받았으며, 완월리 308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포교사는 북봉의정(北峰義淨)(1915.12.13.), 화전교범(和田教範)(1916.1.22.), 사본일도(寺本一道)(1921.12.19.), 아천일행(阿川一行)(1934.9.26.), 양뢰량훈(梁瀨量薰)(1936.7.8.) 등이 맡았다.

신마산시 빈정(濱町) 2정목 1번호에 있었던 정토진종(淨土眞宗) 서본원사(西

20) 諏方史郎, 앞의 책, 142-143면.
21) 같은 책, 125면.

本願寺)파 승원사(勝願寺)에서는 사회교화사업에 뜻을 두어 일요학교를 열어서 소년문고를 설치했다. 대정 4년 가을에는 사설유치원을 설립하고, 보모를 초빙하여 일본인의 어린아이들 70여 명을 수용했으며, 대정 15년 봄에는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여 낙성식을 했다.[22]

진종 포교사인 일고달계(日高達契)는 1904년 러일전쟁 때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활동 범위가 마산 뿐만 아니라, 통영, 창원, 진영, 낙동강까지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진해만이나, 거제, 송진의 방비대까지 설법을 하고, 매월 15일에는 무라이(村井)농장에 가서 농부들을 모아 법문을 했다는[23]내용으로 보아, 진종의 포교장에서는 주로 일본 군대나, 일본인 인부들을 상대로 포교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추방무골(諏方武骨)은 "마산포항의 불교상황은 이와 같으나, 한국인에 대한 도화기관(道化機關)을 갖춘 곳은 아직 없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24] 개화기 일본불교 여러 종파의 포교활동은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대외정책과 늘 보조를 함께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사회사업과 빈민구제,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을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러 기록과 일본인들의 주거지인 신마산과 한국인 주거지인 구마산이 나뉘어 있었던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마산지역의 일본불교 포교소들이 마산 사람들의 신앙적 영역 안에 쉽게 동화하지 못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3. 일제강점기 마산 포교당의 활동

1) 교육과 포교 두 측면에서의 대응

통도사 주지 김구하(九河)는 우리도 가르치고 배워야 나라도 찾고 불법도

22) 諏方史郎, 앞의 책, 145면
23) 스와 부고츠(諏方武骨), 앞의 책, 71면.
24) 한편 일본불교가 일본인만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프랑스사람이 이끌던 완월동의 기독교와 한국인이 운영하던 마산포 쪽의 기독교는 모두 한인만을 상대하고 있었다. 같은 책, 73면.

홍포할 수 있다고 믿고 명신(明新)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마산에 포교당을 세워 김경봉(金鏡峰, 1892~1982)이 초대 주지로 부임하게 된다.[25] 대정4년(1915) 12月7日 대본산 통도사 마산포교당을 경상남도 마산부 신정(新町) 1-64에 설립하는 것을 신고하고,[26] 대정6년(1917) 7월10일에는 김경봉(金鏡峯)을 포교담임자로 신고했다.[27]

경봉은 26세에 제1대 마산포교사로 부임했으며, 1917년 봄에 55살의 위암 장지연(張志淵, 1864~1921)[28]을 만났다. 당시 장지연은 수감생활과 독립운동 결사 활동 후에 해외를 떠돌다 귀국하여 큰아들이 있는 마산에 칩거하고 있었다.[29] 장지연은 오래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마산의 불교포교당에 나갔다가 그곳에 포교사로 온 경봉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의 법문을 듣고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30] 경봉과 장지연이 교유했던 상황은 그가 「조선불교총보」(1919)에 '마산신조불석탑(馬山新造佛石塔)'이란 글을 기고하여 부모에 보은하는 경봉의 뜻을 기린 데서도 잘 나타난다.

1922년 7월에는 마산포교당에서 조직한 불교진흥회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31], 향학열 넘치는 취학아동을 수용하고 가르칠만한 시설과

---

25) 1919년 7월 경봉은 마산포교당(현 정법사)의 첫 주지로 부임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내원사의 주지로 임명을 받아 떠나게 된다.

26) 『조선총독부 관보』 1396호, 1917.4.2.

27) 『조선총독부 관보』 1525호, 1917.9.3.

28) 장지연은 『황성신문』을 떠난 뒤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大韓協會)를 중심으로 자강운동을 전개하는 동안에도 『조양보』, 『해조신문』, 『경남일보』에서 논설을 썼지만, 경남일보사의 내부 분열로 신문사를 퇴사한 뒤에는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권유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활동하였다. 그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식민지 지배 권력과 협력하여 총독부의 기관지를 위해 활동한 것은 1910년 이전 그의 애국주의적인 행적과 비교하면 분명 이율배반적인 행위였으며,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노관범, 「장지연」, 『한국사 시민강좌』 47, 2010, 264-265면.

29) 장지연이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기고했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으나, 그보다 앞선 경남일보 주필 시절에도 장기간 친일행위를 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지연의 '친일' 행적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2008년 4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사명단에 장지연이 포함됨으로써 이제까지 언론계의 선각자로 추앙받아온 그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박선영, 「장지연의 '친일'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유교적 세계관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日本硏究』 11, 글로벌일본연구원, 2009, 222면. 따라서 마산포교당에서 경봉을 만났을 때는 그가 『경남일보』 주필 일을 마치고, 변절에 대해 번민하던 시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30) 이광석 편저, 『是日也放聲大哭—韋庵 張志淵 言路紀行』, 경남언론문화연구소, 1994, 320-323면.

31) 『동아일보』, 1922.7.11., 4면.

교육과정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포교당 예산 1만원을 들여 보통학교를 짓기로 계획한 것이다. 마산불교진흥회에서 총 예산 중 7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천원은 통도사에서 지불하기로 결정되었다. 1922년 11월 기사를 보면 통도사에서 5천원을 보조받아 학교 건립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32] 추가로 본사의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23년에는 교사 건립을 완성하고 학생 120명을 모집해서 배달학원의 문을 열게 된다.[33] 이는 통도사 마산포교당과 마산불교진흥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34] 배달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마산불교진흥회 회원들의 후원을 받아서 유지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1926년 8월 23일『동아일보』기사를 보면 배달학원은 마산불교진흥회에서 사회사업으로 경영하는 것인데 5년 전에 설립되어 취학할 곳이 없는 아동들을 교육해서 1926년 8월 시점에 2회 졸업생을 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학제는 4학년제이며, 재학생 80명을 교원 4명이 지도하고, 경비는 매년 통도사와 학원장 박성칙(朴聖則)씨의 출력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35] 또한 1925년 8월 23일자『조선일보』를 보면, 배달학원에서 매일 2시간씩 1주일 동안 조선글 강좌를 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36] 마산 태화서관(泰華書館)이 주최하고, 동아와 조선의 마산지국이 후원해서 마산중학교의 이윤재씨를 초빙해서 강좌를 하는 방식이었다.

추방사랑(諏方史郞)의『마산항지(馬山港誌)』에 따르면 배달학원은 신정통(新町通)인 통도사 포교당의 서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사회교화사업으로서 조선인 청소년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도사의 대화상 김구하가 기독교의 왕성함에 반해 조선불교가 위축되는 것이 분개하여 세운 포교당으로서 수시로 조선인 신도를 모이게 해

32)『동아일보』, 1922.11.24., 4면.
33) 諏方武骨의『마산번창기』에 보면 통도사 배달학당은 대정 12년(1923) 5월 22일에 건축낙성식을 했다고 되어 있다.『동아일보』, 1923.3.24. 4면.
34)『동아일보』, 1923.12.13. 3면.
35)『동아일보』, 1926.8.23. 4면.
36)『조선일보』, 1925.8.23. 4면.

서 승려들에게 설교를 하게 했으며, 김구하 자신도 와서 사자후 법문을 했다는 것이다. 불교 청소년을 교화하려고 가까운 곳에 배달강습학당을 세웠으나, 그 주동이 되는 통도사 승려들 사이에 내홍이 생겨 마침내 김구하가 물러나게 된 이래로 여전히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어서 별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적고 있다.[37]

이러한 시각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마산포교당의 배달학원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강연회와 음악회도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가극단을 결성해서 경남 요지의 사찰에 순회공연도 하는 등 이른바,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8] 마산포교당에서는 승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인물을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했다. 1921년 6월 27일에는 동경불교유학생 단체, 1921년 6월 30일에는 '평화와 행복'(이영재), '사회 개조와 내적 생활'(김경주), '청년의 사명과 종교단체'(강성인) 등의 주제로 강연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39]

한편 배달학원이 문을 열었던 1923년에 마산포교당에서는 포교사 황현암, 장재륜, 오택언 등의 발기로 불교청년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다.[40] 마산불교청년인 유지 장재륜, 오택언, 고상목, 이용철 외 여러 명이 1923년 9월부터 불교청년회를 조직하여 10월 4일에 마산배달학원에서 불교청년창립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창립회의 당시 출석한 회원이 30-40명이며, 장재륜이 임시의장을 맡았다.[41] 이들 마산불교청년회 회원들은 지역의 사회구제사업에도 열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일보(時代日報)』에는 당시 기근구제회 회원모집 활동을 하던 것을 경찰이 나서서 금지시켰다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42] 하성오, 리영재, 장재륜, 팽삼진, 리영구 등의 5인이 집행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성오와 장재륜이 마산불교진흥회 위원과 겹

37) 諏方史郎, 앞의 책, 147면.
38) 『동아일보』, 1923.5.28., 4면; 『동아일보』, 1923.7.13., 4면; 『조선일보』, 1923.10.10., 4면.
39) 『매일신보』, 1921.6.27., 4면; 『동아일보』, 1921.6.30., 4면.
40) 『동아일보』, 1923.10.14., 4면.
41) 『조선일보』, 1923.10.10., 4면.
42) 『시대일보』, 1924.11.1.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장재륜은 불교청년회의 간부이기도 했다.

1925년 4월 28일자 동아일보에는 마산 각 단체들이 5월 1일「어린이날」과「메이데이」를 기념 선전을 하기 위해 마산 각 소년단체 대표자와 공·사립학교 교원들이 배달학원(倍達學院)에 모여서 행사준비 회의를 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43] 이는 배달학원이 자리를 잡게 된 1925년의 시점에서는 마산지역 사회사업의 구심점 역할도 해왔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5월 1일 행사를 준비하게 모인 사회단체 대표들[44] 중에 배달학원 후원자 내지 마산불교진흥회 회원의 명단과 겹치는 이들이 많이 보인다.

마산포교당에서는 배달학원을 설립한데 이어 1927년 4월 12일에 배달유치원(현 대자유치원)을 설립하게 된다.[45] 양산 통도사 마산불교본교당에서 마산불교회원 등이 1916년 4월 10일에 제4회 정기총회를 열어 유치원을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통도사 주지 김구하가 매년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승낙했다.[46] 마산사립 배달유치원은 마산청년회와 통도사 본산에서 연합 경영하기로 하고 1927년 봄부터 설립한 이래 1년간 사회 유지들이 1,000여원을 후원하여 제반설비를 완비하였으며 경상비 지출은 통도사(매년 500원)와 지역 유지들의 지원금, 그 외 원생들의 월회비로 유지했다.[47]

하지만 이렇게 열성적으로 교육과 포교, 사회사업을 진행해가던 배달학원의 활동은 뜻밖의 사태로 인해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1929년에 본사인 통도사와 마산 포교당 간에 포교사 임명을 두고 분규가 발생했던 것이다.[48] 분쟁의 중심이 된 인물은 3.1운동 참여 등 독립운동의 공적으로 2010년 대통

43)『동아일보』, 1925.4.28., 2면.
44) ▲마산동인회 대표 손덕우 ▲마산청년회 대표 최길룡 ▲마산청년연합회 대표 김귀동 ▲마산기자단 대표 이형재 ▲마산노동회 대표 여해 ▲마산해육운수노동조합 대표 강덕보 ▲마산수양청년회 대표 이쌍룡 ▲마산승무단 대표 최대규 ▲마산불교진흥회 대표 송치권 ▲마산야소교면여청년회 대표 김주봉 ▲마산목물직공친목회 대표 손선명 ▲마산인쇄직공조합 대표 박용규 ▲마산형평사 대표 박유선 ▲마산형평청년회 대표 이상윤.
45) 강릉포교당이 설립한 금천유치원에 이어 '불교계 2호 유치원'으로 기록된 대자유치원은 80년 동안 8000여 명의 원생을 배출하며 지역 어린이 교육의 산실로 자리하고 있다.
46)『매일신보』, 1916.4.18.
47)『동아일보』, 1928.3.14., 4면.
48)『동아일보』, 1929.4.19., 4면.

령장 훈장을 받기도 했던 승려 양대응(梁大應, 1897-1968; 梁萬佑 혹은 梁武弘)이었다. 양대응은 통도사 명신학교의 후신인 학림에서 수학했으며, 1920년 불교청년회에 가입하여 1922년 3월 서울에서 친일승려로 알려진 용주사 주지 강대련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명고축출'사건을 주동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49]

『중앙일보』 1932년 1월 13일자 기사를 보면, 양대응은 진주 옥봉리포교당에 3년간 근무할 때 포교를 열심히 하여 신도가 수백 명에 달했으며, 자명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사회사업에도 열심히 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통도사로 영전되었다고 적고 있다.[50] 그러한 양대응을 통도사 측에서 1년여 만에 다른 곳으로 전근시키자 마산포교당 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마산불교진흥회 남녀회원 6백여 명이 본사 측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던 것이다. 심지어 마산 불교진흥회 측에서 3차례나 본사와 교섭을 진행하다가 일체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하고[51] 진흥회의 간판을 떼어갔다는 것으로 보아 그 충돌이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대응이 결국 전근을 간 이후, 마산포교당에 4개월 간 신도들이 전혀 드나들지 않다가, 오택언((吳澤彦)이 신임 포교사로 오게 되면서 사태가 가라앉기는 했지만[52], 이 시기에 포교사의 부임을 두고 포교당과 본사가 충돌했던 사례들이 이곳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양대응의 뒤를 이어 마산포교당에 부임한 오택언 역시 1923년 무렵 처음으로 마산포교소의 포교사를 시작한 이래 1934년 3월까지 3회 이상 포교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교육과 사회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다.[53] 1923년 8월에는 마산에서 수해구제회를 결성하여 복구기금을 모집하는데 오택언도 회원으로 참가하였다.[54] 같은 해 10월 3일에 오택언은 마산포교당에서

49)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공적조서」,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2021.3.30. 검색).
50) 『중앙일보』, 1932.1.13.
51) 『조선일보』, 1929.4.24., 4면; 『조선중앙일보』, 1934.9.15., 8면.
52) 『매일신보』, 1929.7.24., 3면.
53) 「通度寺 馬山布教師 更迭」, 『매일신보』, 1933.3.18. "양산 통도사 마산포교사 오택언씨는 曾往에도 마산포교사를 역임하야 曾往 倍達學院을 창설하얏스며 불교청년회 소년회 등을 조직하는 등 마산교회의 면목을 일신케 한 공로자엿섯다."

불교청년회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이재부장(理財部長)을 맡았다.[55] 이듬해 1929년 7월에는 마산불교회 포교사로 추대되었으며, 1931년에는 마산 배달유아원의 교사들과 함께 마산포교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강습소를 운영하였다.[56]

이러한 마산포교당의 저항은 1933년에 공주 마곡사 포교당에서 포교당 강습원의 과목 중에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던 점이나, 빈민층의 자녀들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 경찰의 시선을 끌게 되자, 본사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포교당 운영에 개입을 시도하게 되면서 포교당 신도모임 측과 충돌하게 되었던 사건과 맥락이 유사하다.[57] 결국 마산포교당 역시 마곡사 공주포교당처럼 신도들이 본사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일련의 상황과 비슷한 전개를 보여준다. 저간의 사정을 명확히 알려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양대응의 이력과 무관하지는 않은 사태였으리라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2) 마산포교당 사람들의 독립운동

마산지역 불교계의 독립운동에서는 김구하를 필두로 한 통도사의 승려들의 얘기를 빼놓기가 힘들 것이다.[58]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주제에 맞추어 마산포교당을 중심으로 좀 더 조밀하게 시각을 집중해보자 한다. 마산포교당이

54) 「西北水害救濟 馬山에서 組織」, 『동아일보』, 1923.8.24.
55) 「佛教青年會創立」, 『동아일보』, 1923.10.14.
56) 오택언은 1930년 4월에 마산사립배달유아원의 이사가 되었다. 「園舍 增築 保留 리사를 개선」, 『동아일보』, 1930.4.9.
57) 비슷한 시기인 1925년 12월 16일에 공주포교당에서는 포교사 현서봉(玄瑞鳳)의 주도로 불교능인소년회를 조직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 능인소년회에서 무료 소년강습소를 열어서 수백 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매주 화・수・금요일마다 강습을 했다. 이들은 주로 무산계층의 남녀학생들에 집중하여 야학 강습소를 열어서 무료로 교육을 했으며, 이 실달강습원에서 가르쳤던 과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매주 수요일마다 강습했던 종교 과목을 비롯하여, 조선어, 국어, 산술로 되어있다. 김성순, 「일제 강점기 공주 동불사의 아리다라부인회와 능인소년회」, 『大覺思想』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319-324면.
58)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대각사상연구원, 2015, 12면.

문을 열고, 김경봉이 초대 포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으며, 때마침 장지연도 마산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항일운동가, 민족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마산포교당에 모여들었고, 또한 문화인들도 마산포교당을 중심으로 신행과 창작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매일신보』에 『마산부통도사포교당불교회취지서(馬山府通度寺佈教堂佛教會趣旨書)』(1914. 12.16.)라는 제하에 실린 기사를 보면 "장지연(張志淵), 강성팔(姜成八), 박성윤(朴成潤), 옥여인(玉汝仁), 팽석재(彭錫才), 이인숙(李仁淑), 이태형(李泰亨), 김한용(金漢容), 김기두(金璣斗), 김기종(金基鍾), 김태곤(金兌權), 복우길(福祐吉), 이규성(李圭聲), 정영길(鄭永吉), 남기현(南琪賢), 감기현(甘麒鉉) 제씨가 마산부에 통도사포교당을 창립ᄒᆞ고"라는 대목이 보인다.

그 중 팽석재는 대한자강회[59] 회원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1907년 7월 25일에 발행된 『대한자강회월보』 제13호를 보면 마산 불교계와 관계된 인물로는 김태권(金兌權)·팽석재(彭錫才)가 자강회 본회원으로 올라 있다. 또한 자강회 회원 중에 마산·창원 쪽에서 활동했던 감기현(甘麒鉉)은 초계(草溪)군수를 지낸 인물로서, 1909년 5월 「황성신문」(1909.05.21.) 기사에 따르면 "박봉 중에도 지필을 다수 구입하여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가서 수백 명 생도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감기현은 유학을 공부한 관료이기 때문에 불교진흥회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유교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술을 남긴 장지연과 함께 대한자강회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3년 5월 29일자 『동아일보』에는 5월 9일에 마산경찰서에서 마산포교당에 갑자기 출동하여 한 청년을 체포해서 25일에 진주재판소로 압송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나이 23-24세 정도이며, 김영욱(金英旭)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시국에 관한 일로 짐작되는 모종의 혐의로 인해 종적을 숨겨오다가 본가에 와서 잡히게 되었다고 한다.[60] 그 청년은 통도사에서 세운 불교철학과

59) 대한자강회는 1905년 5월 이준(李儁)·양한묵(梁漢默) 등이 조직한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를 확대·개편하였으며, 장지연(張志淵)·윤효정(尹孝定)·심의성(沈宜性)·임진수(林珍洙)·김상범(金相範) 등 20여 명이 국민 교육을 고양하고 식산(殖産)을 증진해 부국강병을 이루어 장차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1906년 4월에 조직되어 강연회의 개최, 기관지 발행 등을 추진하였다.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명신학교를 말하는 듯하다. 독립운동사료나 관련 사이트를 찾아봐도 '김영욱'이라는 이름의 독립유공자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는 당시의 행적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서 기록에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경남지역에서의 3·1운동은 3월 3일에 마산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것으로부터 3·1운동이 시작되어 4월 29일까지 지속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길게 진행된 독립만세운동으로 손꼽힌다.[61] 마산에서는 3월 3일 무학산 고종국장 망곡제, 독립선언서 배포, 10일부터 가사의 모의가 있었다. 이러한 경남의 만세운동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도에 비해 불교계 승려가 주동자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 3월 3일의 합천 해인사, 4월 4일의 밀양군 대룡동(臺龍洞)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62] 경남지역에는 대사찰인 해인사와 통도사, 표충사가 소재하고 있어서 이 사찰들과 그 말사들에서도 다수 참여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재판기록과 3·1운동 관계자료를 통해 밝혀진 마산·창원지역의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171명 중에 마산포교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는 팽삼진, 명도석(배달학원), 여해, 이형재, 최철룡, 오택언 등이 눈에 띈다. 그 중 마산불교진흥회 회원인 팽삼진(彭三辰, 1902-1944)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 의하면, 경남 마산 동성동(東城洞) 출신이며,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고 1923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0년에 애족훈장을 받았다.[63]

배달유치원 설립 준비위원이자, 후원자였던 명도석(明道奭, 1885-1954)은 신간회 마산지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던 사람이며, 1990년에 애국훈장을 받기도 했다.[64] 그는 1919년 3월 21일 마산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면서 자금을

60) 『동아일보』, 1923.5.29., 3면.
61) 남부희, 앞의 글, 176면.
62) 같은 글, 176면.
63)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2021.3.30. 검색).
64) 국가기록원,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http://theme.archives.go.kr/(2021.3.7. 검색).

지원하였으며, 1920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박용만(朴容萬)의 밀사와 만나고 있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마산노동야학교사가 되어 아동들에게 항일정신을 계몽하고 1927년 7월 20일 신간회 마산지회가 결성된 이래 간사 지회장 집행위원등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65)

신간회 마산지회 회원이었던 여해(呂海, 1890-1934)는 배달학원의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보훈청 주관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정보'에 의하면 여해의 본명은 여병섭(呂柄燮, 1890-1934)이며, 경남 고성 출신이다. 1918년 2월 18일 경남 고성에서 장일환이 주도한 국권회복운동을 위한 '조선 국민회'의 경상도 구역장으로 활동하던 중 피체되어 징역 8개월을 받았고 1919년 10월 경 경남 진주에서 홍수원, 강우석 등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 후원의 목적으로 혈성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었으며, 1920년부터 1930년까지 동아일보 통영분국장, 마산지국장, 노동동맹 간부 및 신간회 간부로 전국강연회를 통하여 문맹퇴치, 민족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배달유치원 설립 당시부터 후원했던 옥기환(玉麒煥)은 1907년, 마산(馬山) 완월리(玩月里)에 노동 야학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마산 노동 야학'을 설립한 인물로서 『독립운동사 제8권 : 문화투쟁사』에 수록되어 있다.66)

마산불교진흥회 회원이자, 배달유치원장을 지냈던 이형재(李瀅宰)는 신간회 마산지회 국권회복단 중앙총무 역할도 맡았던 사람이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13 : 학생독립운동사자료집』에 따르면, 3월 3일 오전 11시경 마산부 구마산(舊馬山) 무학산(舞鶴山)에서 개최한 이태왕국장요배식(李太王國葬遙拜式)에 모인 군중에게 조선독립 선언서를 배포하는데 앞장서서 체포되었으며, 1925년 3월 17일에는 동아일보 기자로서, 일제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는 경상남도 기자대회에서 마산지역대표로 참여하기도 하였다.67)

---

65)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2021.3.30. 검색).

66)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8권 : 문화투쟁사』 1976;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https://e-gonghun.mpva.go.kr/openViewer.do(2021.3.30. 검색).

67)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3 : 학생독립운동사자료집』, 1977;

또한 배달유치원 이사회 회원이었던 최철룡(崔喆龍, 1902-1971)은 신간회 마산지회 회원이었으며, 군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8] 최철룡은 1921년 10월 경남 마산에서 金守仁과 함께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그 자금을 조달하여 상해임시정부로 보내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할 것을 계획하고 해남군 황산면 우두리 이참판집으로 가서 동인의 차남 이희용(李喜鎔)에게 출자를 요구하여 동월 27일 이의용의 친척 이현(李玹)을 통해 돈 60원을 수령하고 統營郡으로 가서 군자금을 모집키 위해 활동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을 받았고, 그 후 1927년 3월 5일 경남 마산의 신간회지부 설치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69]

마산포교당의 포교사인 오택언은 1919년 2월 28일 한용운의 부름을 받아 유심사 모임에 참석하였고 동참한 중앙학림 학생들과 함께 각자 만세운동의 임무를 분담하고, 이튿날 3・1운동 만세 행렬의 선두에 섰으며, 밤늦게까지 청진동 등에 독립선언서를 살포하였다. 이후 3월 5일 만세운동을 펼치기 위해 통도사로 향했으나, 누군가의 밀고로 3월 7일 일경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말았다. 서대문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1920년 4월 28일에 출옥한 이후 포교사로서 청년포교 활동에 매진하였다.[70]

이 밖에도 마산포교당의 신도나, 배달학교,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 후원자 등 많은 관련자들이 마산지역의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일단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에 의거하여 눈에 띄는 몇 사람만 이 정도로 정리해둔다.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https://e-gonghun.mpva.go.kr/(2021.3.15. 검색).

68) 국가기록원,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041093640&gubun=search(2021.3.7. 검색).

69)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2021.3.30. 검색).

70) 한상길,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한국불교학』 88, 한국불교학회, 2018, 225-228면.

4. 결론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들어온 일본불교는 한국불교에 위기와 함께 근대화라는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가져다 주게 된다. 특히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포교당을 만들게 되면서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포교활동을 개시했던 것도 불교 근대화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10년-1913년의 기간 동안 전국에 18개의 포교당이 설립되었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1876년 개항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본불교의 한국진출이 이루어졌으며, 마산지역에도 정토종을 필두로 하여 정토진종, 일련종, 일련정종, 진언종, 조동종 그리고 금광교나 천리교 등의 신종교들이 신마산에 포교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 일본불교의 포교소는 주로 일본인들을 상대로 포교와 사회사업을 진행했으며, 마산사람들의 신앙적 영역 안에 쉽게 동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에서 세운 마산포교당에는 김경봉이 초대 주지로 부임하게 된다. 이 마산포교당에서 1대 포교사인 경봉과 장지연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변의 불교인사들도 함께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교감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마산불교진흥회 회원과 마산 신간회의 회원 명부 간에는 겹치는 인물이 많이 나타난다.

마산포교당과 관련된 사람들의 범주, 즉 배달학원과 배달유치원의 임원과 후원자 그룹, 마산포교당의 포교사와 신도, 포교당 신도들로 이루어진 마산불교진흥회 회원들 중에서 마산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들을 조사한 결과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산포교당 초기 시절부터 관여했던 인물들은 마산 신간회 등의 항일결사에도 참여했던 이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공식적인 독립유공자 기록에 남아 있는 김태권・팽석재・이형재・팽삼진・여해・최철룡・옥기환・명도석・양대응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 외 독립운동 관련 기록에서 누락된 이들도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산포교당에서는 마산불교진흥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학원과 배달유치

원을 설립하여 교육과 포교는 물론 지역의 문화사업까지 진행하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었다. 작은 규모의 포교당에 속하는 포교사와 신도들이 그 시대 마산에서 해냈던 사회사업과 독립운동의 궤적이 만만치 않았음을 이 논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대한자강회월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조선총독부 관보』, 『중앙일보』.

김광식, 「근대불교의 청소년 포교와 조선불교소년회」, 『대각사상』 8, 대각사상연구원, 2005, 9-41면.

_____,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일본불교사연구』 9, 일본불교사연구소, 2013, 13-46면.

김성순, 「일제 강점기 공주 동불사의 아리다라부인회와 능인소년회」, 『大覺思想』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309-330면.

김순석, 「근대 일본 불교 세력의 침투와 불교계의 동향」, 『한국학연구』 1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8, 65-91면.

김예슬, 「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사업체와 조선인경제인 연구」,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2019.

김의환, 「조선을 둘러싼 근대 露日관계 연구: 馬山浦 사건과 港民의 저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1-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남부희, 「마산·창원지역의 3·1운동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7, 175-212면.

노관범, 「장지연」, 『한국사 시민강좌』 47, 2010, 254-271면.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8권 : 문화투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발행, 1976.

_____, 『독립운동사자료집 13 : 학생독립운동사자료집』, 국가보훈처 발행, 1977.

박선영, 「장지연의 '친일'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유교적 세계관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日本硏究』 11, 글로벌일본연구원, 2009, 221-240면.

손장원, 「인천신사국팔십팔영장(仁川新四国八十八霊場) 연구」, 『인천학연구』 24, 인천학연구원, 2016, 43-77면.

스와 부고츠(諏方武骨), 하동길 역, 『마산번창기』, 창원학연구센터, 2021.

윤기엽, 「개화기(開化期) 일본불교의 포교 양상과 추이」,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4,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255-287면.

이광석 편저, 『是日也放聲大哭-韋庵 張志淵 言路紀行』, 경남언론문화연구소, 1994.

제점숙, 「일본불교의 근대인식과 개항기 조선: 정토종(淨土宗)의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2, 한국일본근대학회, 2011, 109-130면.

諏方史郎, 『馬山港誌』, 朝鮮史談會, 1926.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대각사상연구원, 2015, 9-63면.

한상길,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한국불교학』 88, 한국불교학회, 2018, 209-242면.

국기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2021.3.30. 검색).

공훈전자사료관, https://e-gonghun.mpva.go.kr/(2021.3.30. 검색).

【Abstract】

A Study of the Activities of Japanese Buddhists in the Masan Area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the Response of the Masan Buddhist Missionary Center

Kim, Sung-Soon*

This essay focuses on the period of between 1910 and 1920, when Korea opened its ports, and uses historical documents to analyze the entrance of Japanese Buddhist into the Masan area, the establishment of the Masan Buddhist Missionary Center at Tongdosa Temple in response, and the education, cultural enrichment, and missionary activities targeting Masan area residents. This paper inclu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Masan Buddhist Missionary Center, including Buddhist missionaries, devotees of the center, the operators of the Baedal School and Baedal Kindergarten as well as instructors and supporters, and the Masan Buddhist Committee, which forms the core of the Masan Buddhist Missionary Center.

Following the opening of Korea's ports in 1876, Japanese Buddhist practitioners began entering into Korea in significant numbers, in response to this change, mission centers were also established at Korean Buddhist temples, and they pushed forward modernizing practices such as education and missionary outreach.

With the Pure Land Sect at the head at Masan Harbor, the True Pure Land Buddhism Sect, the School of Nichiren, the Orthodox School of Nichiren, the School of Shingon Buddhism, the Soto School, as well as new religions such as the Konkokyo Sect and Tenrikyo Religion all established missionary centers in the New Masan Region.

Kim Gyeong-bong was invited and appointed as the main monk at the Masan Buddhist Missionary Center at Tongdosa Temple. This is where it appears Kim Gyeong-bong and Jang Ji-yeon met and shared their feelings and opinions on contemporary issues with Buddhist figures in the surrounding area. Many members of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Dongguk Univ.

the Association for Promoting Masan Buddhism, which had collaborated with Jang Ji-yeon from early on, were active in the Shingan Association that anti-Japanese groups.

Moreover,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Association for Promoting Masan Buddhism, the Baedal School and Baedal Kindergarten were established at the Masan Buddhist Missionary Center, and it served as a cultural center that oversaw education and missionary activities as well as cultural projects in the area. Although the scale of the missionary center was limited, the educational and social initiatives accomplished by the missionaries and believers as well as the deeds of independence activists were not inconsequential.

Keywords: colonial period in Korea, Tongdosa Temple, Masan Buddhist Missionary Center, education, Buddhist missionary work, Korean independence activism.

접수일: 2021.03.30.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20.